

화순생명사회포럼 창립...첨단의료단지 유치 힘 모은다

창립 총회·기념 포럼 열려

4개 분과위원회 운영

선진 생명사회 구축 방안 모색

화순군이 화순생명사회포럼 창립 총회를 갖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향한 지역민의 의지를 드러냈다.

화순군은 지난 10일 화순읍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발기인, 고문, 자문위원, 화순백신산업특구 산·학·연·병·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생명사회포럼(이하 포럼) 창립 총회 등이 열렸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포럼 창립 총회가 열렸고, 2부에서는 창립 기념 기초강연과 토론회가 이어졌다.

강대의 포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화순생명사

회포럼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분야별 전략 마련에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축사를 통해 "화순의 미래 먹거리는 백신·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화순생명사회포럼이 상생 협력을 핵심 가치로 삼고, 분과위원회별로 활발한 정책 제안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화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구심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행사에서는 문승현 전 GIST 총장이 좌장을 맡아 '선진 생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 화순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기초강연과 패널 토론회가 진행됐다.

강대의 포럼 위원장(지역소멸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과 융합택 전 과기부 제1차관(대한민국의 미래 기술과 향후 전망)이 기초강연을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회에서는 선진 생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화순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포럼은 지난 8월 열린 화순백신산업특구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남·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유치를 위한 산·학·연·병·관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성이 제안, 공감대를 이루면서 창립이 추진됐다.

포럼은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전남·광주 첨복단지 유치와 선진 생명사회 구축 방안 등을 모색,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 화순생명사회포럼 발기인과 자문위원, 화순백신산업특구 산·학·연·병·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화순읍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서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미술작품으로 재탄생한 내고향 문화자산

함평군, '다뭇다뭇 이웃4촌' 전

자연생태관서 17일까지 열려

전남대 미술학과 8명 작품 전시

전남대 미술학과 학생들이 함평과 영광, 보성, 완도 등 고향의 문화자산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해 눈길을 끈다.

함평군은 자연생태공원 다목적 전시관에서 오는 17일까지 '다뭇다뭇 이웃4촌'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미술학과 재학생 8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관 '2022년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다뭇다뭇 이웃4촌'은 함평과 영광, 보성, 완도 등 4개 지역에서 나고자란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전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출품 지역의 문화자산을 조사·발굴해 미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킨 한국화 24점과 영상미술 1점이 전시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작가가 출신지역의 문화자산을 작품으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도농 간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가로수 가지치기

경관개선·안전사고 예방

담양군이 가로수 가지치기로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민원을 동시에 해결했다.

담양군은 담양읍 시가지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 조절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담양교-신남정사거리 구간의 은행나무 86본에 자연수형을 고려한 역지, 도장지 등 수관 가지치기와 고사지 제거 등을 진행했다.

은행나무의 수관이 커짐에 따라 주택, 상가 등 각종 생활민원이 제기되고 응해, 그늘음병이 발생돼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등 수형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수목의 생육환경과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수관 밀도를 조절하여 수목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담양군은 앞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로 주변 상가나 보행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동수확기를 이용하여 조기에 열매를 제거했으며,

내년 초봄에는 담양 문화회관-관방제림 구간의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사랑나눔 바자회'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장성군청 민원실 앞에서 이웃돕기 기금 마련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장성군, 농협장성군지부, 장성군조합운영협의회 등 다수의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협의회는 의류, 신발, 각종 생활용품부터 떡, 사과 등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들을 준비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장성에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수익금은 이웃돕기 활동과 저소득 주민 김장김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가 나눔실천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장성지역 내 10개 여



성단체 임원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양성평등 기념 행사 추진 등 여성 권익보호와 활발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취약계층 어르신

인공관절·안질환 의료비 지원

함평군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이다.

무릎인공관절은 무릎당 1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백내장·녹내장과 같은 안질환 수술은 1안(眼)당 30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반드시 수술을 받기 전에 해야 하며, 진단서(또는 소견서)와 자격 증명서류를 지참해 함평군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버스커 캠핑 페스티벌 '비긴어게인 in 강진'

강진 오감통 야외공연장서

19일 전국 20팀 본선무대

버스커 캠핑 페스티벌 '비긴어게인 in 강진' 본선무대가 오는 19일 시작된다.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감성여행 1번지, 강진'을 목표로 전국 버스커 뮤지션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총 121팀이 신청했으며 온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20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본선은 오는 19일에 강진 오감통(전남음악창작소)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음악적 기량으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종 우승팀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 상금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

려상 3팀에게 각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축하공연에는 MZ세대 대표 뮤지션 '오빠야'의 신현희, 월드뮤직 뮤지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의 하림, '슈퍼스타'의 이한철 등 실력 있는 뮤지션이 무대에 오른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적 애도의 분위기에 맞춰 최대한 차분하게 페스티벌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페스티벌을 위해 사전에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버스커 캠핑 페스티벌은 당초 10월 25일 예선을 거쳐 11월 5일부터 본선 무대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19일로 연기됐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윤병태 나주시장이 금천면 야죽마을에서 열린 '찾아가는 마을좌담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윤병태 나주시장 '찾아가는 마을 좌담회'

금천면 야죽마을 주민 민원 경청

윤병태 나주시장이 주민들과 만나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나주시는 지난 10일 금천면 야죽마을에서 윤병태 시장과 주민들이 '찾아가는 마을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찾아가는 민박간담회라는 명칭으로 반남면 저미, 노안면 감정, 이창동 정량마을에서 3차례 주민 대화시간을 가졌으나 '민박'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대비되는 현실 여건을 감안해 4번째부터 공식 명칭을 찾아가는 마을좌담회로 변경했다.

기존 오후 8시로 고정했었던 좌담회 시작 시간도 일몰시간이 빨라진 겨울철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해 한 시간 앞당겨진 오후 7시 또는 마을 여건에 맞춰 대화 시간에 융통성을 기하기로 했다.

야죽마을회관에서 열린 4번째 마을좌담회는 윤병태 시장, 조규권 노인회장, 조종연 이장, 정금순 부녀회장, 김용식 개발위원장, 김선중 전 금천농협조합장을 비롯한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축척리 농로 아스콘 정비', '마을 안

길 우천 대비 축구 정비', '벽지노선 버스 증차 및 승강장 정비', '마을100원 택시 혜택 확대', '야죽지역묘 주변 꽃 식재 및 쉼터조성', '화재 대비 소방차 진입도로 확장' 등 일상과 밀접한 편익·기반시설 개선을 윤 시장에게 요청했다. 마을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 노동력 확보', '귀농 활성화를 위한 영농기반 확대' 등도 건의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대중교통 개선 요구의 경우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시너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벽·오지마을 100원 택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마을 안전은 신속히 해결하고 많은 마을이 겪는 보편적 현안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중요도를 검토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좌담회는 그동안 불편해도 불편한 채로, 답답하면 답답한 채로 살아오셨던 주민 한 분의 말씀이라도 더 듣고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며 "미처 현장에서 하지 못했던 말씀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나 면담을 통해 건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화순열린도서관, 12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7일까지 4개 강좌 49명

화순열린도서관이 12월 특별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인 대상 '우드트레이 만들기'와 '캔들 홀더 및 트리 모양 비누 만들기', 초등학생 대상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무릎돌 케이크 만들기' 등 4개 강좌를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강좌별 재료비 5000원은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

수강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화순열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도서관팀(061-379-3955)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